



제과업계 최신 유행이 시작되는 강남·서초지회

# 제과업계 새로운 트렌드를 전파하는 안테나

(사)대한제과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의 지회지부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회원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신 유행이 시작되는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제과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전파하며 기술 발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남·서초지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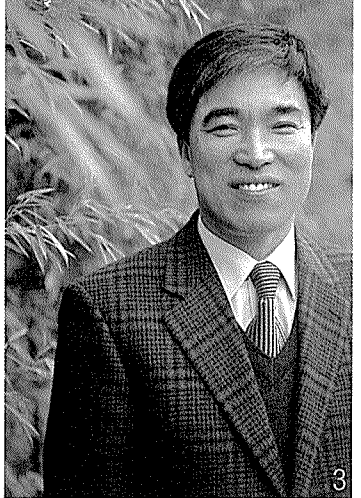
글\_김영주 기자·사진\_전문식

대한민국의 모든 유행이 시작된다는 강남지역.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한 강남 지역 소비자들에게 맞추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시도와 제품을 선보여야 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제품, 인테리어 등 우리 제과업계의 트렌드도 대부분 강남·서초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강남·서초지회는 유명 제과점이나 유명 기술인들의 점포가 워낙 많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한다. 그래서인지 강남·서초지회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여러 방안이 쏟아진다. 제과업계의 유용한 정보를 회원사들이 공유하고 잘 퍼져나가게 하는 안테나 역할을 강남·서초지회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강남·서초지회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제품, 위생, 경영, 포장 세미나 등도 기획해서 회원들이 공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각종 대회가 열릴 때마다 강남 지역 기술인들의 참석률이 높을 뿐 아니라 각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기술 발전에 앞서는 지회로 발돋움했다.



1 회의가 있는 날이면 고문들과 임원진들이 모두 모여 지회 운영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 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대치동 리치몬드상가 3층에 자리잡은 강남·서초지회 사무실. 3 홍종식 강남·서초지회장.

###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강남·서초지회는 홍종식 지회장을 필두로 임원진들의 사이가 돈독하기로 유명하다. 무슨 회의가 열리던 임원진은 물론이고 전직 지회장이었던 고문들까지 모두 참석해 협회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한다. 홍종식 지회장은 특히 지회 운영에 고문들의 도움이 크다고 고마움을 전한다.

“고문님들이 현 집행부만큼이나 왕성한 활동으로 협회에 적극적으로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선배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배운 후배들이 그 뒤를 이어가기 때문에 지회 조직이 언제나 튼튼합니다.”

강남·서초지회는 이사진을 중심으로 과우친목회를 결성해 한달에 한번 따로 모임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참여하는 과우친목회는 친목을 다지면서 지회 운영에 관한 일들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눈다. 특히 사비를 털어 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회 살림에 경제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는다.

강남·서초지회 회원들도 협회 일이라면 언제나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다. 강남·서초지회에서는 일년에 4~6번씩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시설 등에 빵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번에 적게는 200여 개에서 많게는 1천여 개까지 관련 구청과 연계해서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기증 제품이 많이 필요할 때마다 강남·서초 회원들은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발 벗고 나서준다. 강남·서초지회 양지원 사무국장은 “미처 예상치 못한 행사로 제품이 필요할 때 갑작스레 부탁해도 늘 묵묵히 도와주시는 회원들이 많아 너무 감사하다”며 회원들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 업종 파괴에 맞서는 열성

요즘들어 강남·서초지회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대기업과 같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점포들이 많이 생겨 회원사를 위협하는 한편 업종 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태의 수준에 이르러 고심 중이다. 유명 제과점 입점은 물론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의 증가와 함께 특히 변화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몇 년 사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회원들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더군다나 업태까지 변경해서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와 베이커리 카페 등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 지회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 강남·서초지회는 이러한 업체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협회의 당위성을 깨닫게 하고 협회 가입을 유도해 협회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지회 살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업종 파괴로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제적인 보탬을 주기 위해 강남·서초지회는 공동구매도 기획했다. 회원들이나 업체로부터 훨씬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지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안내 공문과 전화 연락을 취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 지난 가을에 시행했던 통조림밤을 비롯해 과일통조림, 마가린, 호두, 럼 등 품목에 제한없이 다양하게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서초지회에서는 원부제로 상승과 업종 파괴로 힘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동구매 사업에 각별히 신경 쓸 예정이다.

회원들의 공동 발전에 더욱 앞장서고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강남·서초지회의 신호등은 언제나 초록색 등을 환히 밝히고 있다. ☞